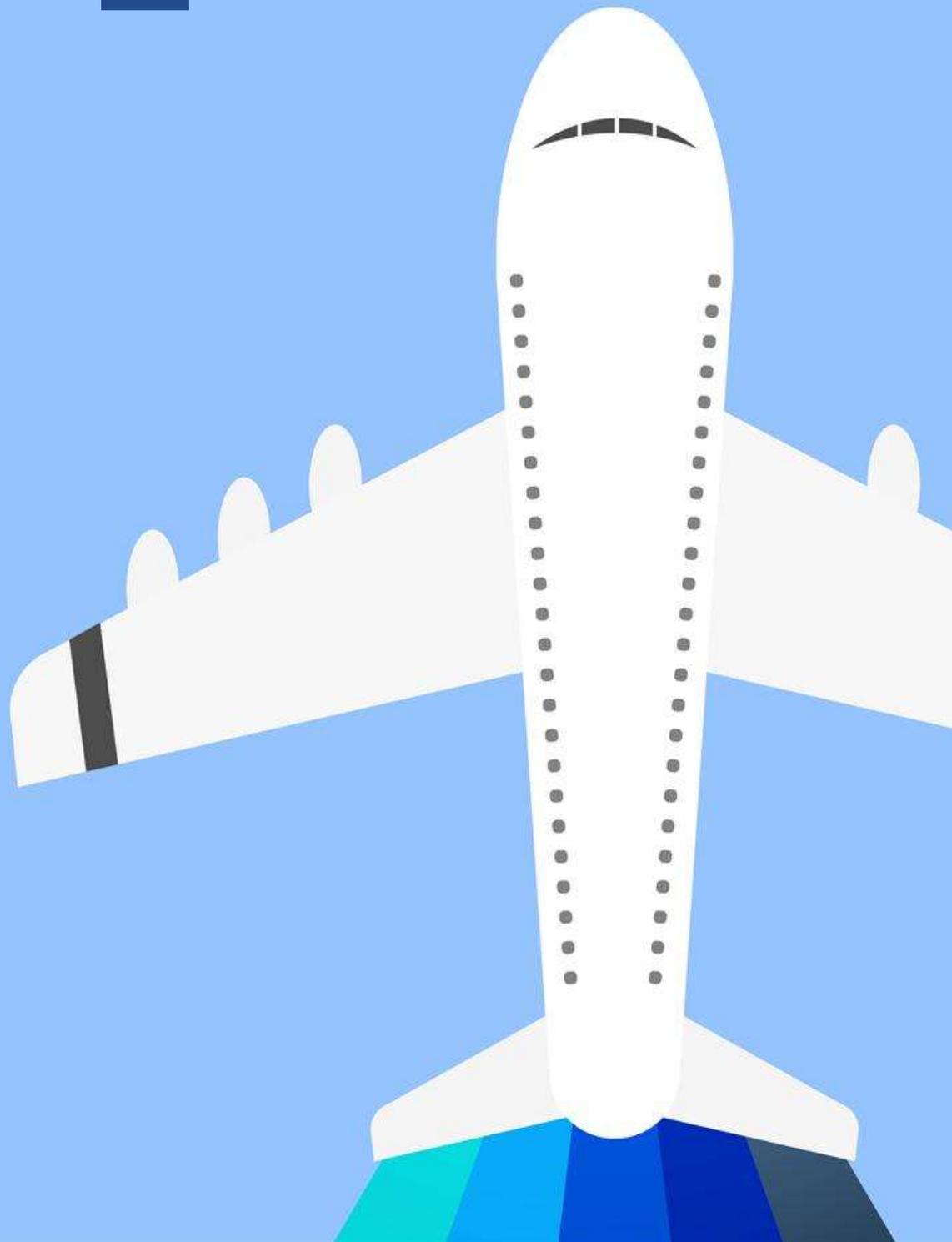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 베트남

## 다낭

*DANAN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	0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동향 .....	03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동향 .....	13
IV. 베트남 경제 전망 .....	20
V. 체류시 참고사항 .....	22
VI. 주요 연락처 .....	24

## 1. 베트남 및 다낭 개황

### 1. 베트남 개황

국 가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 적	33만 2,378km <sup>2</sup> (한반도의 약 1.5배)
기 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 도	하노이 (Hanoi, 825만명, 2020년 베트남 통계청 기준)
인 구	9,758만명 (2020년 베트남 통계청 기준)
주요도시 (인구)	하노이(825만 명), 호치민(922만 명), 하이퐁(205만 명), 다낭 (116만 명), 껀터(124만 명)
민 족	비엣족(깁족, 전 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레르 족 등 54개 민족
언 어	베트남어
종 교	불교(43.5%), 카톨릭(36.6%), 까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건 국 일	1945.9.2.(독립기념일)
정부형태	국가주석제
국가원수	Nguyen Xuan Phuc
총 리	Pham Minh Chinh
명목 GDP	USD 2,712억 (2020년 베트남 통계청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2.91% (2020년 베트남 통계청 기준)
1인당 GDP	USD 2,779 (2020년 베트남 통계청 기준)
화폐 단위	베트남동 (Vietnam Dong, VND)
환 율	USD 1 = VND 23,134 (2021.09.21.베트남 중앙은행)
산업 구조	농업(6.9%), 제조업(15.8%), 건설업(4.8%), 도소매업(11.6%), 부동산업(5.8%), 금융업(3.7%), 숙박외식업(4.3%) 등
교역 규모	수출 : USD 2,826억 (2020) 수입 : USD 2,627억 (2020)

## 2. 다낭 개황

면적·인구('20년)	1,285 km <sup>2</sup> / 116만명			
지역내 총생산 (GRDP) ('20년)	USD 4,355백만			
1인당 총생산('20년)	USD 3,709			
GRDP 성장률('20년)	-9.77%			
FDI 누적('20)	USD 35.2억/ 876개 프로젝트			
투자환경 순위('20년)	지역경쟁력지수(PCI): 5위 / 63개 성·시			
주요 개발지역 및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a Khanh IP, Da Nang IP 등 6개 산업단지와 하이테크파크, IT파크, 소프트웨어파크, FPT Complex 운영</li> <li>• 중점분야 : 도시인프라개발(스마트 시티 등), ICT 등 하이테크 공업, 관광 및 부동산 개발,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li> </ul>			
주요 산업('20년)	<b>항목</b>	<b>비중</b>	<b>주요 업종</b>	<b>성장률 (2019년 대비)</b>
	1차 산업	2.3%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	+2.4%
	2차 산업	21.7%	공업, 건설업, 제조업 등	-12.2%
	3차 산업	65.5%	도·소매업, 숙박·요식·부동산업 등	-8.2%
	세입	10.6%	-	-15.5%
성내 주요 기업	<p><b>(베트남기업)</b> VIN 그룹, SUN 그룹, HOANG ANH GIA LAI, VINSUN 그룹 등 대부분의 베트남 대기업 거점 소재</p> <p><b>(외국기업)</b>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진출 증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Yamato Sewing Company, 28백만달러 투자</li> <li>- (호주) RMIT University, 132만달러 투자</li> </ul>			
한국기업 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기준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 이은 4위 투자국</li> <li>• 233개 프로젝트, 총 374백만불 투자('2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 90백만불('20년 누적)/ 부동산 개발</li> <li>- 롯데마트/ 43백만불('20년 누적)/ 유통업</li> <li>- VK 플러스 로지스틱/ 25백만불('20년 누적)/ 운송 및 물류업</li> <li>- 대원/ 21백만불('20년 누적)/ 부동산 개발</li> </ul> </li> </ul>			
전략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이자 동남아시아 「Trade Gate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베트남 5대 무역항 및 최고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 보유</li> <li>- (위치)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동남아 동서회랑(EWEC)의 동부 거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태평양 진출 기지</li> </ul> </li> <li>• 총 50개의 대학 및 직업학교를 보유, 우수인력이 풍부하고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55%에 달함</li> </ul>			

##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 · 투자 동향

### 1. 베트남 거시경제동향

구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억 달러	2,013	2,232	2,427	2,660	2,712
GDP 증가율	%	6.2	6.81	7.08	7.02	2.91
1인당 GDP	달러	2,172	2,385	2,587	2,800	2,779
산업생산증가율	%	7.5	9.4	10.2	8.86	3.36
수출	억 달러	1,766	2,140	2,435	2,643	2,826.5
수입	억 달러	1,748	2,111	2,367	2,531	2,627
무역수지	억 달러	17.8	29.0	72.0	100	199.5
물가상승률	%	2.67	3.53	3.54	2.79	3.23
외채	억 달러	429.1	463.2	469.7	478.1	491.3
공채	억 달러	1,074.9	1,152.4	1,217.4	1,215.7	1,588
외환보유고	억 달러	410	505	625	800	948
평균 환율	Dong/\$	21,935	22,451	22,606	23,155	23,208
기준금리	%	6.5	6.25	6.25	6	4
FDI	억 달러	244	359	355	380	285
외국인 관광객	천 명	10,010	12,900	15,498	18,009	3,837

주: 2020년 통계는 베트남 통계청 및 세관총국 추정치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중앙은행, ADB, WB, IMF, Trading Economics

## 2. 대외 교역

###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지난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6-2020)동안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2.2%(수출액 13.05%, 수입액 11.4%)의 속도로 증가했음.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이 2019년 대비 5.3%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역액 5.1%, 수출 증가율 6.8% 증가를 기록하며 2016년 이래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 2020년 베트남의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등의 불리한 글로벌 교역 환경 속에서도 191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음. 품목별로는 중공업 상품 및 광물이 전년 대비 11.3%, 경공업 및 수공업품이 2.4% 증가하였으며, 시장별로는 미국이 7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하였음
- 2021년 1~8월 누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2,135억 2,436만 달러, 2,161억 5,48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1.8%, 33.7%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의 무역수지는 26억 3,053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4월 말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일부 수출기업의 조업 중단 조치로 인해 수출실적에 부정적 영향으로 추정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D 억, 증가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수출	1,766 (9.0)	2,140 (21.2)	2,435 (13.2)	2,643 (8.4)	2,826 (6.9)	2,135
수입	1,748 (5.6)	2,111 (20.8)	2,367 (11.1)	2,531 (6.8)	2,627 (3.8)	2,161
무역수지	18	29	68	112	199	-26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1년 8월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 10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61.9(29.0)	1	중국	72(33.3)
2	중국	33.4(15.6)	2	한국	35.1(16.2)
3	한국	14.1(6.6)	3	일본	14.5(6.7)
4	일본	13.3(6.2)	4	대만	13.6(6.3)
5	홍콩	7.4(3.5)	5	미국	10.3(4.8)
6	네덜란드	5.1(2.4)	6	태국	8.6(4.0)
7	독일	4.7(2.2)	7	말레이시아	5.4(2.5)
8	인도	4.0(1.9)	8	호주	5.2(2.4)
9	태국	3.9(1.8)	9	인도네시아	4.9(2.3)
10	영국	3.9(1.8)	10	인도	4.7(2.2)
	기 타	61.9(29.0)		기 타	41.8(19.3)
	<b>합 계</b>	<b>213.6(100)</b>		<b>합 계</b>	<b>216.1(100)</b>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1년 8월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비중)	순위	품목명	수입액(비중)
1	전화기 및 그 부분품	35,326(16.5)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46,839(21.7)
2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31,800(14.9)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31,164(14.4)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3,153(10.8)	3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2,588(5.8)
4	섬유·의류제품	21,110(9.9)	4	직물	9,525(4.4)
5	신발류	12,629(5.9)	5	플라스틱 원료	8,046(3.7)
6	목재 및 목제품	10,389(4.9)	6	철강제품	7,727(3.6)
7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7,168(3.4)	7	비금속	5,843(2.7)
8	철강제품	7,060(3.3)	8	플라스틱 제품	5,301(2.5)
9	수산물	5,569(2.6)	9	화학 제품	5,036(2.3)
10	원사류	3,644(1.7)	10	화학 물질	5,015(2.3)
	기 타	55,677(26.1)		기 타	79,072(36.6)
	<b>총 계</b>	<b>213,524</b>		<b>총 계</b>	<b>216,155</b>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2020년 한-베 교역 규모, 691억 2,200만 달러 기록
  - 한국의 대외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2014~2015년에도 한-베 간 교역액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확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20년 수입(베→한)이 약 23% 감소하며 교역액이 감소
  - 2020년 통계 기준 베트남과 전체 교역액은 전년 대비 0.18% 감소하였으나, 무역수지 흑자액은 오히려 증가하여 여전히 한국에게 무역흑자를 주는 무역상대국
  
- 2021년 8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며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13% 증가한 310.8억 달러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212.6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1%증가함. 수입액은 98.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수출 (한→베)	47,749 (46.3)	48,629 (1.8)	48,178 (-0.9)	48,543 (0.8)	21,265
수입 (베→한)	16,176 (29.5)	19,632 (21.4)	21,072 (7.3)	20,579 (-2.3)	9,818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6	27,964	11,446
교역규모	63,925	68,261	69,250	69,122	31,083

주 :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고> 한국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위상 변화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출 : (' 17)3위 → (' 18)3위 → (' 19)3위 → (' 20)3위 → (' 21.8)3위

\* 수입 : (' 17)7위 → (' 18)7위 → (' 19)5위 → (' 20)5위 → (' 21.8)5위

\* 교역 : (' 17)4위 → (' 18)4위 → (' 19)4위 → (' 20)4위 → (' 21.8)4위

\* ' 21년 8월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2위)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수출품목명	2021년 8월 수출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	반도체	8,539(24)	14.3
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6,728(18.9)	42.1
3	무선통신기기	2,130(6.0)	-3.1
4	합성수지	1,599(4.5)	61.0
5	가구부품	1,543(4.3)	11.0
6	철강판	849(2.4)	23.2
7	석유 제품	803(2.3)	-4.5
8	플라스틱 제품	762(2.1)	4.8
9	계측제어분석기	720(2.0)	55.3
10	편직물	611(1.7)	18.7
	기타	11,345(31.8)	-
	<b>합계</b>	<b>35,629(100.0)</b>	<b>14.9</b>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수입품목명	2021년 8월 수입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	무선통신기기	3,669(23.3)	1.4
2	의류	2,050(13.0)	2.6
3	컴퓨터	1,241(7.9)	80.8
4	신변잡화	769(4.9)	6.1
5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535(3.4)	-27.6
6	목재류	510(3.2)	23.2
7	산업용 전기기기	488(3.1)	36.6
8	반도체	448(2.9)	11.6
9	가구부품	382(2.4)	27.9
10	영상기기	327(2.1)	19.7
	기타	5,295(33.7)	-
	<b>합계</b>	<b>15,714(100.0)</b>	<b>14.9</b>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3.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 □ 베트남 FDI 총괄

- 2021년 1~6월, 베트남 FDI 총 유치액 전년 동기 대비 2.5% 소폭 하락하였으며 신규+증액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액 12.3% 증가, 투자건수는 34.5% 감소
- 코로나 이전 시기인 '19년 1~6월 베트남 FDI 총액 184.6억 달러엔 크게 못미치며, 전체 FDI 투자 중 제조업(69.7억 달러), 발전/용수업(53.4억 달러) 투자 합계가 전체 투자의 약 80% 차지

< 연도별 총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단위: USD 백만,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투자 금액	26,890.5	37,100.6	35,465.5	38,951.7	28,530.1	15,271.09
투자 건수	9,832	9,000	10,711	16,227	9,804	3,119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기획투자부(MPI)

#### □ 국가별 FDI 동향

- 주요 3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투자 베트남 전체 FDI의 49.6% 차지하며, 2021년 6월 누계기준, 베트남 총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3,978억 달러로 1위는 한국이며 총 외국인 투자의 18.1% 차지 다음으로 일본(15.8%), 싱가포르(15.6%), 대만(8.7%) 순
- '21년 6월까지 국가별 직접투자는 싱가포르(309개 프로젝트, 56.3억 달러)가 1위, 다음으로 일본(260개, 24.4억 달러), 한국(926개, 20.5억 달러), 중국(386개, 12.6억 달러) 순
  - 동 기간 중 싱가포르는 Long An LNG 1, 2 사업(31억 달러), 폭스콘(2.7억 달러) 등을 투자하였으며 일본은 Marubeni의 O Mon 2 화력발전소 투자(13억 달러), 한국은 LG 디스플레이 추가 투자(7.5억 달러) 진행

< 對 베트남 국가별 투자 누적액 상위 8개국의 최근 5년 투자동향 >

(단위: USD 백만)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6	1988~2021.6 누적
1	한국	8,719.9	7,212.0	8,344.4	3,949.1	2,053.2	72,076.4
2	일본	9,204.6	8,598.9	4,169.2	2,367.9	2,442.5	63,059.0
3	싱가포르	5,894.8	5,071.0	4,421.2	8,994.1	5,636.1	62,271.1
4	대만	1,532.7	1,074.1	1,883.1	2,058.4	882.0	34,858.3
5	홍콩	1,566.6	3,231.6	8,178.3	1,995.7	1,025.3	26,690.4
6	버진 아일랜드	1,650.7	1,866.2	1,406.2	902.9	321.2	22,154.5
7	중국	2,137.5	2,464.8	4,115.2	2,459.4	1,262.1	19,768.3
8	말레이시아	297.6	435.5	220.5	195.0	81.2	12,995.3

\* 자료원 : 베트남 투자기획부, 순서는 '88년~'21년 6월 누적 투자액순

□ 업종별 FDI 동향

- 2021년 1~6월 기간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및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이 선도, 부동산 경영 및 건설, 도소매 유통업 투자는 점진적 회복세
- 2021년 1~6월 제조업 분야 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대비 12.8% 하락하며 아직 코로나 상황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 이전인 '19년 1~6월 제조업 투자의약 53% 수준에 머물러
  - 베트남 내 코로나 재확산 및 사회적 격리 시행, 관광객 입국 제한 등으로 FDI의 베트남 유통 및 소비시장 투자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이 쉽지 않음

< 대 베트남 산업별 신규 외국인투자 동향 >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6월
제조업	71.9	44.3	46.8	64.7	47.6	45.6
부동산 경영업	4.7	8.4	18.7	10.1	14.6	7.5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2.9	6.0	10.4	6.8	5.7	2.7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	0.6	22.6	4.6	2.6	18.0	34.9
호텔&요식업	1.1	1.4	1.6	1.2	1.1	0.6
건설업	2.2	3.4	3.3	2.5	1.9	0.7
물류, 운송업	3.3	1.2	1.1	0.9	2.1	2.4
전문, 과학기술 활동	3.6	3.1	6.1	4.1	4.7	3.1

\* 자료원 : 베트남 투자기획부,

□ 주요 FDI 투자 프로젝트

-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는 침체되었던 베트남 FDI 유치에 활력 제고
  - 제조업 분야 주요 신규 프로젝트로는 Everwin Precision 2억 달러(홍콩), Fukang Technology Foxconn 2.7억 달러(싱가포르), Hayward Quartz 1.1억 달러(미국), Ojitex 6천만 달러(일본) 등이 투자됨
  - 증액 프로젝트로는 LG 디스플레이 7.5억 달러(한국), Intel 4.7억 달러(미국), Radian Tire 3.1억 달러(중국) 등이 투자됨
  -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Long An LNG 1, 2 발전소 투자 (31억 달러), 일본 Marubeni의 O Mon 2 화력발전소 투자 (13억 달러)가 큰 부분 차지

□ 한국기업의 투자 동향

- 2021년 1~6월,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총 투자액 및 그린필드 투자(신규+증액) 기준 3위로 동 기간 대 베트남 한국투자는 총투자 기준 제조업 분야에 약 71.1%가 집중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9.6%),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6.1%), 전문과학기술업(3.2%) 순임
- 제조가공업 및 부동산 경영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73.0%, 381.1%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20.2%), 전문과학기술업(-55.8%), 요식업(-41.6%) 등 코로나 영향이 남아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

- '21년 6개월 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3.6% 증가하였으나, 투자 프로젝트 수는 -48.1% 하락하며 투자빈도는 축소됨
- 코로나의 글로벌 3차 확산 및 베트남 코로나 재발생으로 인해 베트남 입국이 제한되며 2020년 말 나타났던 한국기업의 투자 상승흐름 주춤

< 1988년 ~ 2021년 6월 누계, 한국의 분야별 투자현황 >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US\$ 백만)	산업비중
제조 가공업	4,528	52,981.4	73.5%
부동산 경영업	205	9,636.9	13.4%
건설업	917	2,892.0	4.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355	1,494.8	2.1%
물류, 운송업	182	1,023.9	1.4%
호텔 요식업	375	1,020.6	1.4%
기타	1,549	3,026.7	4.2%
총계	9,111	72,076.4	100%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 한국기업의 업종별 투자 현황

- 누계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73.5%)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3.4%), 건설업(4.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1%), 물류운송업(1.4%) 순으로 여전히 제조업이 한국의 투자를 이끌고 있음
- 특히, 2021년 1~6월 중 제조업 투자비율은 71.1%로 평균아래 였으며, 유통수리업, 전문과학 기술업,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최근 투자비율이 꾸준히 상승 중

□ 한국기업의 지역별 투자 현황

- 2021년 6월 누계 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삼성전자 1공장이 위치한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4.9%(107.6억 달러)를 차지 (한국투자 프로젝트 수 956개)
- LG 전자 단지가 있는 하이퐁이 11.3%(81.2억 달러)로 최초로 투자지역 두번째 순위 달성, 다음으로 하노이 10.8%(77.6억 달러), 동나이 10.3%(74.0억 달러), 타이응우웬 7.8%(55.9억 달러), 호치민 7.2%(52.1억 달러) 순
- 누계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 58.9%, 남부 35.4%, 중부 및 기타 5.7%

□ 주요 한국투자 프로젝트

〈 2020년 한국기업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

(단위 : USD 백만)

연번	기업명	분야	투자금액	지역
1	LG DISPLAY	디스플레이	750	하이퐁시
2	SMC HUE	공단개발	150	트아투엔후에시
3	Chadwick Ecopark	교육	35	흥옌성
4	Patron Vina 2법인	전자부품	30	빈푹성
5	PLATEL VINA	전자부품	30	동나이성
6	LS ELECTRIC VIETNAM	전자부품	25	박닌성
7	KOMELON CORP	기계부품	20	하남성
8	Chemilens Vina	광학기기	21	하이즈엉성
9	HAEHWA VINA	광학부품	14	푸토성
10	Vina CNS	전자부품	12	박닌성
11	Daewon Auto Vina	자동차부품	12	닌빈성
12	VSSC STEEL CENTER	금속, 철강	11	바리아붕따우성
13	BEST INNOVATION GLOVE	장갑류	10	빈푹성
14	BUJEON VIETNAM	전자부품	8.6	박닌성
15	BUWON VINA	신발	10	동나이성
16	MJ VIETNAM	임업	7.6	닥농성
17	HANAPROTECH VINA	전자부품	7	푸토성
18	Shinsung Vina	원사	6.5	푸토성
19	PATH MASTERY	장갑류	6	동나이성
20	Myeongsung Vina	전자부품	5	푸토성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 · 투자 동향

###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 동남아시아 및 중국, 인도 시장 진출 교두보

- 2015년 12월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기점으로 국제 통상무대에서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
- 특히, 베트남은 베트남-EU FTA, RCEP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통해 대외시장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베트남은 거대 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며 원료 공급지,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주요 수출시장, 거대 내수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020년 FDI 기업군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028.9억 달러.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72%에 상당하는 수치임. 반면, 베트남 국내 기업의 총 수출액은 726억 달러 수준으로 FDI 기업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줌
  - \* 연도별 총 수출액 대비 FDI 기업군 수출액 비중(%) : ('13년) 61.3 → ('14년) 62.5 → ('15년) 68.2 → ('16년) 70.2 → ('17년) 70.9 → ('18년) 70.7 → ('19년) 68.8 → ('20년) 71.7
- 베트남 사회개발에 있어서도 FDI 기업군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2017년 FDI 기업군의 사회개발 투자액은 전체 사회개발 투자자본의 23.8%에 상당하는 386조 2,000억 동(약 176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

#### □ 거대 인구를 보유한 떠오르는 신흥시장

- 9,648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은 세계 15위의 거대 인구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약 2억 6700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7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층 인구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이 베트남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내수시장 성장을 견인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 연령층 소비자의 주요 소비품목인 IT·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대도시 거주 중산층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
  - \* 연간 가처분소득 5,000 ~ 15,000 달러인 가구 비율이 2017년 34%에서 향후 2030년 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시 유입 인구 증가와 소득수준 증대에 기반한 상품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와 함께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시장도 활발히 성장 중
  - 최근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높은 접근성을 겸비한 미니마트와 편의점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 202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은 110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8%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동남아내 유일하게 두자릿 수 성장을 기록함. 시장조사 기관 iPrice에 따르면 작년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한 이커머스 사이트 10개 중 5개가 베트남 기업임.
  - 베트남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에 주문 당 평균 17달러를 지출하며,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남.

##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경제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 성향과 투자 환경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일반적으로 총 인구의 약 16%가 거주하고 있는 호치민시(남부)와 하노이(북부)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다낭(중부)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 (호치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으로, 소비시장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재편 등을 토대로 상당한 규모의 해외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하노이) 행정 수도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하노이는 최근 인구급증과 활발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베트남의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 중임.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 노력,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내실화를 다지며 동남권 유망 투자지로 재조명 받고 있는 분위기
- (다낭) 베트남 및 동남아의 대표적 휴양지에서 베트남의 신생 투자지로 부상 중. 2017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차세대 경제 도시로서의 입지가 보다 강화될 전망

##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구

- 베트남은 2021~2025년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산업화를 통한 중간 소득 국가 달성, 2030년까지 신흥국 중 고소득국가 도달, 2045년에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음.

< 2021~2025 베트남 사회·경제개발 계획 >

경제	2021~2025년 연평균 GDP 성장률	6.5~7%
	1인당 GDP	4,700~5,000 달러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	6.5~7%
	도시화율	45%
	GDP대비 제조업 비중	25% 이상 달성
	디지털 산업 비중	20% 이상 달성
사회	도시인구 실업률	4% 미만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25%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70%
	평균 수명	74.5세
	상대적 빈곤율 감소	연간 1~1.5%p 지속
	의료보험 가입 인구 비율	95%
인구 10,000당 의사 수	10명	

\* 자료원 : 2021~2025 베트남 사회·경제발전계획

### ○ 제조업 육성 정책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비는 현지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베트남 무역적자의 주요인
-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업 간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품·소재 산업 부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함

\* 부품·소재 산업 관련 투자기업에게 법인세, 수입세, 부가가치세(VAT) 및 신용대출 우대 제공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FTA 체결 및 경제공동체 참여를 통한 우호적인 대외 통상환경 조성

- 베트남은 총 15개의 FTA협정 체결, 14개 협정 발효 중. 특히, 2015년 말에는 AEC(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에는 베트남-EU FTA를 타결하고 베트남-EAEU FTA를 발효하여 단기간 세계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 2014년 12월에 타결된 VKFTA(한-베트남 FTA)도 2015년 5월 정식 서명 과정을 거쳐 당해 12월 20일 발효함

○ RCEP 협상이 2020년 11월 공식 서명 및 체결되었으며, 미국 탈퇴로 좌초 위기가 예상됐던 TPP도 11국 체제의 CPTPP로 재편되면서 베트남 정부 및 대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베트남의 FTA 참여 현황 >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CFTA(중국, '05.7.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08.12.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IFTA(인도, '10.1. 발효), AHKFTA(홍콩, '19.6. 발효)	-	-	ACFTA (캐나다)
베트남 단독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	VEFTAFTA (유럽자유무역 연합),	FTAAP (아시아태평양)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9.1. 발효), EVFTA(유럽연합, '20.8. 발효) UKVFTA(영국, '21.5. 발효)		VIFTA (이스라엘)	
--	---	--	-----------------	--

##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 및 정비

- 자본력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FDI 자본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지속 추진 중
- 2020년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 개정안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개정법들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투자법) 주요 내용으로는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 227개로 축소, 스타트업 투자여건 완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 변경(51%이상에서 50%초과로) 등이 있음.
  - (기업법) 국유기업 범위 확대(국가가 지분 100%보유에서 50%초과보유), 주주총회 정족수 완화, 현물출자 기한시 행정 소요기간 불산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 (노동법) 베트남 근무자의 퇴직 연령 상향, 건국기념일 전후로 휴일 1일 추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연장 1회, 최대 4년(최초2년+연장2년)만 허용 등의 내용 포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2020년까지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지속적 이행을 결의(Resolution 19-2017/ND-CP)
  - 특히,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ASEAN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

- 2016년 출범한 베트남 신정부, 성장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민간기업 발전에 기반한 성장 노선 채택
  - 당시 응우웬 쉐우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016년 5월 가졌던 임기 첫 정기회의에서 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임기 중 중요 과제로 천명

○ 국영기업 내 국가 지분 매각 가속화 추진

- 2017년 8월, 베트남 정부가 정부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리스트 및 회수율을 성문화된 법령으로 최초 발표(Decision 1232/QD-TTg). 이에 따르면 2017~2020년, 406개 국영기업 내 정부 투자금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 회수(매각)되며, 일부 기업은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 ('17년) 135개 → ('18년) 181개 → ('19년) 62개 → ('20년) 28개

○ 2021년 신정부 민간주도 경제성장 기조 강화 전망

-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영기업 민영화는 현재 추진 속도가 상당히 더딤. 민영화의 주요 걸림돌인 상충되는 정책과 규제 수정, 토지평가 불투명성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이번에 국가주식 자리에 오른 응우웬 쑤언푹(Nguyen Xuan Phuc) 주석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어 국영기업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민간 경제를 동력으로 한 경제 개혁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지원법 도입

-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 추진 중
- 베트남 사상 최초로 발의된 중소기업지원법이 2017년 6월 국회를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은행 대출 용이화, 법인세 감액(최대 3% 감액), 중소기업 대상 전국구 지원 프로그램 구축, 창업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주요 내용

- 지난 2020년 3월에는 투자법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 대상을 보완하면서 인센티브 대상 투자 활동\*이 확대됨. 이는 중소 및 혁신 스타트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제품 유통, 중소 인큐베이션에 필요한 기반 여건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 시설 및 설비 관련 등

○ 스타트업 육성

- 폭 총리는 20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발표함
- 2016년 베트남의 신설 기업 수가 사상 최초 1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제도 지원 하에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

- \*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추산한 베트남 내 스타트업 수는 약 1,500개로,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창업 수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앞지름
-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3,000여개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고, 2015 ~ 2019년 베트남 스타트업이 유치한 평균 투자액은 연평균 22%씩 증가
- PPP(민관합작) 방식의 인프라 개발 적극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개선과 공공부문 투자 효율성 증대, 민간 기업의 SOC 개발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목표로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2018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SOC 개발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PPP 방식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63/2018/ND-CP)을 발효함
  - 또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리스크 분담(프로젝트 재무계획상 수익 75%이상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수익 감소분의 50%를 보전) 등 내용을 담은 PPP법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 예정

## IV. 베트남 경제전망

### □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아세안 국가 중 GDP규모 4위 달성

-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목표 성장률은 6%로, 국제 금융 기구들은 6% 중반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
  - 2020년 베트남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2.9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다만, 베트남은 인근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며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룩한 소수의 국가로 기록됨.
  
- (교역)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 수출환경 개선
  - 지난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체결, 8월 EU-베트남 FTA(EVFTA) 발효, 11월 RCEP협정 체결로 수출환경이 개선되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컨설팅기관 피치솔루션에 따르면 통신기술, 섬유, 신발, 농산물, 자동차,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해당 산업들의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
  - 다만, 2020년에도 FDI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비중은 약 70%로 매우 높음.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현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베트남의 수출실적은 2020년에 비해 더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임. 2021년 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4.7% 감소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1~2월 누적 기준으로는 작년 수출량의 23%를 상회하는 수준임. 주요국들의 백신접종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환경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수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목표 교역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발 대체 투자처 수요의 수혜
  -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개편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시설 가동이 어려워진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 투자자를 찾기 시작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40%가 16~40세로 구성된 젊은 인구 구성, 저렴한 임금, 중

- 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함
-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통상 단순 조립과 아웃소싱 등의 허브로 여겨지던 베트남에 인텔(5G관련 제품), 폭스콘(첨단 전자제품) 등 글로벌 첨단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기존 제조기지로서의 지리적·경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재, 유통, 부동산 투자 유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에 따른 M&A 매물 증가도 베트남의 외자 유치 확대에 우호적으로 작용 중

## □ 정부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성장기조 유지의 관건

- 베트남 경제 환경, 우호적 요인과 비우호적 요인 상존
  - (우호적 요인) △베트남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물가·금리·동화 가치 안정세, △농업 생산량 개선 등
  - (비우호적 요인) △주기적인 코로나19 사태 발생,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대외적 변수와 함께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와 국영 기업 구조개혁, △조세 수입원 축소, △취약한 민간경제 부문, △낮은 노동생산성 등 많은 대내적 위협 요인이 잠재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성장 모멘텀 유지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와 금융 건전성 규제, 국영기업 개혁 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가 정부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주요 대도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 등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리스크 관리의 성패가 올해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 V. 체류시 참고사항

### 1.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 겹옷, 가디건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2. 입국 시 유의사항

- '10. 9월부터 입국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19. 3월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제한 조치로 인해, 기업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입국만 허용
- '21. 5월부로 베트남 입국시 '시설 격리 3주+자가 격리 1주'로 방역 수칙 강화
- 한편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3. 환율

- USD 1 = VND 23,778 ('21.9. 베트남 중앙은행, VND 10,000 = 약 500원)

### 4.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이용 편리
- 요금
  - 기본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VND 5,000~12,000까지 상이
  - 가까운 시내 주행 시 VND 60,000(약 3천원) 정도로 저렴함

### 5.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 6.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 (07:30-16:30)

7.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가능)

## 8.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전화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 9.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을 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지갑, 여권, 휴대폰, 테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간염, 이질 등 위험이 높음. 가능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요망
  - 가능한 호텔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가능한 적은 금액은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함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발생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숍 등을 불시 집중 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추방하고 있음 (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 VI. 주요 연락처

### 1. KOTRA 다낭무역관 (KOTRA Da Nang)

- 주소 : 4th Floor Bach Dang Complex, 50 Bach Dang St., Hai Chau Dist., Danang, Vietnam
- 전화 : (84-236)377-9700, 팩스: (84-236)377-9701

### 2.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24) 3831-5110/6, 팩스 : (84-24) 3831-5117

### 3. 한국 총영사관

#### (다낭)

- 주소 : Lot A 1-2 Chuong Duong St., Ngu Hanh Son District, Danang, Vietnam
- 전화 : (84-236) 356-6103, 팩스 : (84-236) 356-6105

#### (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 3822-5757, 팩스 : (84-28) 3822-5750

### 4. 긴급의료시설

- 빈멕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Da Nang
  - 주소 : No. 4 - 30/4 street, Hai Chau, Da Nang
  - 전화 : (+84)236-371-1111 (Hotline)

## 5. 현지 주요식당

### <한식>

식당명	주소	TEL	비고
한강	171 D.Tran Hung Dao, Nai Hien Dong, Son Tra	090-524-0879	일반한식
경복궁	Lo4 A3.5 Khu Cong, Hai Chau	070-468-2673	일반한식
고구려	107 D.Dinh Nghe, An Hai Bac, Son Tra	093-442-1529	일반한식
먹쌈한식	268 D.Dinh Nghe, An Hai Bac, Son Tra	089-840-5206	일반한식
비월	29 Morrison, Phuoc My, Son Tra	093-216-5824	일반한식
베테랑 프리미엄	100 Tran Bach Dang, Bac My Phu, Ngu Hanh Son	0236-371-2888	숯불구이

### <중식>

예원	Lo4 A3.5 Khu Cong Hai Chau	090-524-0879	일반중식
다빈	85 D.Tri Trach, An Hai Bac, Son Tra	070-468-2673	일반중식

### <일식>

ShshiWorld	10 Phan Boi Chau, Thach Thang, Hai Chau	0236-389-8484	일반일식
Dasushi	50 Phan Chau Trinh, Phuoc Ninh, Hai Chau	0236-357-3939	일반일식

### <베트남식>

Madame Lan	4 Bach Dang, Thach Thang, Hai Chau	090-569-7555	베트남전통식
Lam Vien	88 Tran Van Du, Bac My An, Ngu Hanh Son	0236-395-9171	베트남전통식

### <도시락배달>

본죽	2 Ly Tu Trong, Thach Thang, Hai Chau	0236-353-8209	한식도시락
정성도시락	50 Tran Duc Thong, An Hai Bac, Son Tra	036-483-0229	한식도시락

### <야식배달>

코코넛 피플	20-22 Ly Thanh Tong, Son Tra	039-884-2768	치킨 등
안주랑 야식이랑	23 D.Ly Thanh Thong, Son Tra	077-944-7184	담발 등

##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 2018.12월 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 방한
- 2019.6월 Vuong Dinh Hue 부총리 방한
- 2019.11월 Nguyen Xuan Phuc 총리 방한
- 2020.9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베

<참고2> 다낭시 및 인근 지역 주요 명소

<p><b>1</b> 바나힐스 (Ba Na Hil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낭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소재한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휴양지 (해발 1500m)로 Ba Na는 '신성한 여인'을 뜻함</li> <li>▶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총 길이 5801m의 케이블카 보유 (소요시간 약 20분)</li> <li>▶ 정상에는 프랑스 마을, 판타지 파크(놀이시설), 밀랍 인형 박물관, 머큐어 호텔(4성급) 소재</li> <li>▶ 입장료 : VND 65만(약 33천원)-뷔페포함 시 VND 70만</li> </ul>
<p><b>2</b> 린응사 (Linh Ung Temp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낭 해안가 북쪽, 선짜 반도 언덕에 위치한 사원으로 거대한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li> <li>▶ 관음상은 총길이 67m로 내부에는 서로 다른 형상을 한 21개의 불상이 소재</li> <li>▶ 영응사 안에는 사원들과 거대한 석상, 고목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li> <li>▶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인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li> </ul>
<p><b>3</b> 미케 해변 (My Khe Bea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 (Forbes)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에 포함</li> <li>▶ 페러세일링(보트가 낙하산 끌어주는것) 등 몇 가지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음</li> <li>▶ 시내에서 들어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해변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li> </ul>
<p><b>4</b> 오행산 (Marble Mounta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양 철학에 따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Thuy Son(水山), Moc Son(木山), Hoa Son(火山), Tho Son(土山), Kim Son(金山)으로 구성</li> <li>▶ 14~15세기 중부 베트남을 지배했던 참파 왕국의 조각상 및 18세기 베트남의 떠이 선(西山) 왕조의 다양한 베트남 시대의 유적들을 관람</li> <li>▶ 입장료 : 계단 VND 15천(750원) / 엘리베이터 15,000동/회</li> </ul>

**5 용다리 (Dragon Bridge)**



- ▶ 다낭 한강(Han River)에 위치한 다낭의 랜드마크
- ▶ 2009년 7월에 건설을 시작, 2013년 3월 개통
- ▶ 15,000개의 LED램프로 야간 조명 (7가지 색으로 변함)
- ▶ 매주 토, 일 21시에 용머리에서 불쇼를 진행(약 10분)
- ▶ 주변에 '사랑의 다리' 및 '용이된 인어'상이 소재, 포토존의 역할을 함

**6 다낭 대성당 (Da Nang Cathedral)**



- ▶ 베트남 중부 다낭 대교구 성당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 다낭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
- ▶ 치솟는 선과 크라운 아치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성당 안에는 성서의 사건을 그린 삽화가 있음
- ▶ 지붕에는 합금으로 만든 회색 닭 조각상이 있어 치킨 교회로 부르기도 함
- ▶ 국내 TV프로그램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

**7 다낭 한시장 (Da Nang Han Market)**



- ▶ 한 시장은 다낭 최대 규모의 종합 재래시장으로 다낭 대성당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위치
- ▶ 고기, 생선, 과일 등의 식료품부터 꽃, 비단 등의 옷감, 티셔츠나 청바지 등의 옷, 신발, 기념품 등 판매
- ▶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8 호이안 올드타운 (Hoi An Ancient Town)**



- ▶ 다낭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
- ▶ 15~19세기 동남아 무역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 중국·일본의 건축양식과 베트남 전통방식이 결합한 당시 건물(일본교, 광동회관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호이안 야시장 역시 가까이에 위치
- ▶ 입장료 : VND 120,000(6천원)

**9 미선유적지 (My Son)**



- ▶ 다낭에서 남서쪽으로 69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참파 왕국의 힌두교 사원 유적지로 4세기~14세기에 세워짐
- ▶ 미선은 참파 왕국의 종교였던 힌두교 시바 파의 성역이며, 참파 왕국 전체의 수도였음
- ▶ 사원군은 2개의 산맥에 의해 둘러싸인 2km 너비의 골짜기 안에 있음
- ▶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썸 감 언 응아이 다아 쯔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뵈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썸 따 쎬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썸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ì a?(아잉(남)/찌이(여) 땡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땡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움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썸 로이)

오늘 hom nay (홈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홈 콰)

#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